



하루 120km 달리는 '말 마라톤'

14일 새벽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된 승마지 구력경기 참가자들이 사막을 돌아 첫 번째 라운드를 끝내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번 경기는 하루 최대 120km를 8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말들의 '마라톤'이다. /연합뉴스



女핸드볼 5연패 위업

팀 구기 종목에선 첫 금



한국 여자 핸드볼이 아시안게임 5연패 위업의 금자탑을 쌓으며 아시아 최정상 권좌를 굳게 지켰다. 강태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가라파 인도어 홀에서 열린 대회 여자핸드볼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을 29-22, 7점 차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여자핸드볼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부터 이번 대회까지 단 한번도 놓치지 않고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날 금메달은 이번 대회에서 팀으로 선수들이 구성된 구기종목에서는 처음 나온 것이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189cm의 센터백 올라지데르스카야(4골)가 공중에서 내리킥

는 중거리 슈팅과 184cm의 피봇 야나 바실예바(5골)의 힘에 눌려 전반 4분까지 한 골도 못 넣으며 0-3으로 뒤졌다.

이후 우선희(6골)와 문필희(9골)의 속공이 살아나며 전반 14분에는 8-7로 역전했지만 높은 수비벽에 번번이 공격 기회가 무산되며 재역전을 허용해 전반 21분에는 8-12, 4점 차까지 뒤쳐졌다.

그러나 한국은 빠른 패스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상대 수비벽을 흔들었고 틈새가 생기자 문필희의 중거리 점프슛과 피봇 김차연(2골)의 슈팅이 위력을 발휘하며 14-14, 동점으로 전반을 마쳤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후반 들어서도 허영숙(4골)과 명복희(2골)의 중거리포, 안정화(2골), 우선희의 속공이 불을 뿜어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했다.

끝까지 문경하도 중요한 고비마다 선방을 펼치며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은 후반 15분 우선희가 속공을 성공시켰을 때 23-16, 7점 차로 달아나 승리를 확정지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4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인도어홀에서 열린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여자 핸드볼 결승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양궁 '천하무적'

남녀 개인·단체 모두 금

펜싱·레슬링·복싱 정상 문턱서 고배

한국 양궁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걸려 있던 금메달 4개를 휩쓸었고 여자핸드볼은 대회 5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13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남자단체전 결승에서 앞서 열린 여자단체전에 이어 각각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임동현(20·한국체대), 박경모(31·인천계양구청), 장용호(30·예천군청)가 결승에 나선 남자대표팀은 1엔드에서 세 명이 고루 10점을 한 발씩 쏘는 활약으로 54-47로 치고 나가며 기선을 잡은 뒤 리드를 뺏기지 않고 대만을 216-211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 개인-단체전에 걸린 금메달 4개를 석권했다.

한국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4개를 모두 가져간 것은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남자양궁은 아시안게임 단체전 7연속 우승의 대기록도 달성했다.

남자 핸드볼이 편파 판정으로 분위기를 삼킨 가운데 여자 핸드볼은 아시안게임 5연패의 금자탑을 쌓으며 아시아 최정상 권좌를 굳게 지켰다.

한국여자대표팀은 알가라파 인도어홀에서 열린 대회 여자핸드볼 결승전에서 카자흐스탄을 29-22, 7점 차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펜싱과 레슬링은 결승에서 기세를 무너졌다.

오은석·이혁(이상 경륜운영본부)-원우

영-오승환(이상 서울메트로)으로 구성된 한국남자펜싱팀은 14일 남자 사브르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에 44-45 한 점 차로 아쉽게 져 금메달을 놓쳤다.

한국은 또 여자부 예제 단체전 결승에서도 또 다시 중국에 36-43으로 져 은메달에 그쳤다.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했던 한국레슬링은 자유형 첫날 정상 문턱에서 이란에 막혀 고배를 마셨다.

한국레슬링은 74kg급 조병관(25)과 60kg급 송재명(32·이상 주택공사)이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모두 이란 선수에게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국복싱은 밴텀급(54kg)과 라이트헤비급(81kg) 결승에 한순철(서울시청), 송학성(남원시청)이 출전했으나 모두 패해 은메달 2개를 획득하는 데 그쳤다.

우수에선 이승균(충북우수협회)이 남자부 남급에서 9.7점을 얻어 남근, 남도, 남도 등 세 종목 점수를 합쳐 순위를 가리는 남권 전능에서 총 29.05점으로 3위에 올랐다.

한국 우수는 이로써 하루 전날 열린 산수 56kg급 김준열과 70kg급 안용운(이상 영주시청)에 이어 모두 3개 동메달로 대회를 마감하게 됐다. 이밖에 북한 여자축구는 일본과 결승전에서 전·후반, 연장전까지 득점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편 한국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 금메달 51개, 은메달 51개, 동메달 78개로 종합 2위를 지켰다.

일본은 무더기 금메달이 예상됐던 공수도에서 5개 중 1개 체급에서만 우승하는 부진 속에 금메달 49개, 은메달 68개, 동메달 73개로 3위에 머물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달 실패' 女축구 유망주 발골에 만족



한국여자축구가 동북아 3강의 높은 벽을 절감했다.

한국여자축구대표팀은 여자축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90년 베이징대회부터 메달에 도전했지만 북한, 중국, 일본에 가로막혀 늘 같은 실패를 거듭했다.

이번 도하아시안게임에서도 대만(2-0승), 베트남(3-1 승)을 눌렀지만 북한(1-4 패), 일본(1-3 패), 중국(0-2 패)에 연달아 무릎을 꿇어 4위에 그쳤다.

안종관 여자축구대표팀 감독은 14일 중국

과 3, 4위전에서 0-2로 패한 뒤 인터뷰에서 "북한, 중국, 일본에 기술적으로 떨어지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정신 자세도 바꾸고 조직력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두 명의 여고생 유망주 지소연(15), 권하늘(18·이상 위례정산고)을 발굴한 건 이번 대회에서 건져 올린 수확이다.

1991년생으로 지난 1일 대만전에서 남·여 대표팀을 통틀어 한국축구 A매치 최연소 득점 신기록(15세293일)을 세운 지소연은 161cm의 단신이지만 발근의 볼 컨트롤과 골 감각을 자랑해 차세대 여자축구를 이끌 선두 주자임을 입증했다. /최재호기자 lion@



13일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남·여 양궁 단체전 결승에서 우승한 한국 남녀 선수들이 금메달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 위부터 박성현,이특영, 윤옥희, 윤미진, 임동현, 이창환, 장용호, 박경모. /연합뉴스

한국 복싱 金펀치 '0'

한국 복싱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없이 은 3, 동메달 1개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고 13일 모든 경기 일정을 마쳤다.

1970년대 후반과 80년 초반 '효자 종목'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한국 복싱이 단 1개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채 귀국 비행기에 오르게 된 것이다.

금메달 없이 은 3·동 1 그쳐... '효자종목' 옛 말

한국 복싱 대표팀은 지난 3일 시작된 경기 첫날부터 불길한 조짐을 보였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57kg급의 조석환(충북체육회)과 69kg급의 김정주(원주시청)가 1회전에서 동반 탈락, 금메달 사냥길이 가시밭 길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2005년 세계선수권대회 51kg급 챔피언 이육성(보은군청)마저 8강전에서 중국의 양보에게 불의의 일격을 받아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오히려 기대를 받지 못했던 64kg급 신명훈(상무)과 54kg급 한순철(서울시청), 81kg급 송학성(남원시청)이 예상 밖으로 선전,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954년 마닐라대회부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복싱은 첫 대회부터 금메달 3개를 따낸 데 이어 1966년 방콕대회부터 1990년 베이징대회까지 대회 5개 이

상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1986년 서울대회 때는 12개 전 체급을 석권하며 아시아 복싱 최강국임을 자처했다.

하지만 1994년 히로시마대회에서는 금메달 2개를 따는 데 그치더니 4년 뒤 방콕대회에서는 은 2, 동메달 5개만을 건지는 부진을 겪어야 했다.

한국 복싱은 2002년 부산대회에서 다시 금메달 3개를 따내며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듯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다시 단 한 개의 금메달도 없이 대회를 마감했다.

오인석 복싱 국가대표팀 감독은 "금메달이 기대됐던 선수들이 초반 부진으로 잇따라 탈락해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에게 미안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부진의 이유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3일 카타르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열린 2006아시안게임 권투 남자 라이트 헤비급 결승에서 송학성(왼쪽)이 타지키스탄의 쿠르비노프 드자코를 상대로 힘겨운 승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